■ 제주미술협회 제52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진주아

폐해녀복 품고 도예에서 조각으로 확장

전년보다 30% 이상 출품 늘어
1·2차 심사 도내외 15명 입상

대상 '불턱: 발화되지 못한 언어'
내년 제주갤러리 개인전 지원

도예에서 조각으로 작업을 확장해 온 제주 진주아(52) 작가가 전국 공모 제주도미술대전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와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운영위원회는 1차 포트폴리오 심사(8월 6일), 2차 선정작가 미발표 출품작 심사(8월 22일)를 거쳐 진주아의 '불턱: 발화되지 못한 언어'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출품작은 도내 69점, 도외 25점 등 94점(평면 83, 입체 11). 전년 72점(도내 43, 도외 29)보다 30% 이상 늘었다. 대상 작가에겐 상금 1000만원(작품 매입비 포함)과 함께 다음 해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 개인전 개최를 지원한다.

대상작 '불턱: 발화되지 못한 언어'.

입상자는 15명(괄호 안 작품명). ▷**대상**=진주아 ▷**우수작가상**=안중갑(탐라의 묵향, 몽돌에 물들다), 채윤경(밀도의 흐름) ▷**선정작가상**=김미숙(명월리 팽나무와 돌다리), 이우현(통로), 김소라(과밀한 숨), 김양임(관계의 집합), 김일환(용의 길), 정은아(기억의 파도 26), 김주연(공명), 박주애(오늘의 할 일), 김병국(나의 정원), 임미성(초록이 머무는 길), 정재훈(등을 따라 걷는 길), 차유상(백두대간: 백두에서 한라까지). 지난 22일 시상식을 진행한 제주미술협회는 이달 27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수상작을 선보인다.

대상 진주아

대상작은 폐해녀복, 폐부표 등을 재료로 썼다. 2차 심사위원들은 "해녀들이 입었던 슈트를 재구성해 제주의 역사를 서사로 승화시킨 점이 인상적이며 특히 참신하고 기발한 조형성을 인정했다"고 평했다.

해녀인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도예 작품을 창작했던 진주아 작가는 2019년 조각 작업에 뛰어들면서 폐해녀복을 다뤘다. 이 무렵 그는 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폐해녀복 소재 개인전을 가졌던 그는 오는 12월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으로 서울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를 펼친다.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진 작가는 도내 어촌계를 찾아 해녀들과 교감해 온 과정을 들려주며 "제주 해녀들의 '출가 물질' 경로를 따라 2세대 해녀를 만나며 제주 해녀의 문화와 역사, 정신을 담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미술대전이 "신진 작가 등용문"으로 불린 시절이 있었지만 옛말이 되는 듯한 모습이다. 혁신안을 통해 2017년부터 공모전 운영 방식을 바꾼 가운데 몇 차례 개인전 등 이력이 붙은 작가들도 수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경 제주미술협회 회장은 "신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2차 심사까지 가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울 전시 등을 지원하면서 질적인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대상작 '우리 것은 좋은 것'.

■ 제주미술협회 제52회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대상 허은석

소방관에서 문인화가로 농부의 마음 담다

출품작 238점… 우수상 3점
대상작은 '우리 것은 좋은 것'
27일까지 문예회관 입상작 전시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문인화를 배우기 시작한 제주 허은석(65) 작가가 전국 공모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대상을 차지했다. 2006년 말 문인화에 입문해 그간 이 공모전에서 다섯 차례 입선했는데 올해 최고상 수상으로 20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와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대전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6~8일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 등 93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지난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출품작은 총 238점(한글서예 106, 한문서예 46, 서각 28, 문인화 58). 한글·문인화 부문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출품 수는 전년(256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대상 허은석

심사 결과 대상 허은석의 '우리 것은 좋은 것', 우수상 이영훈(한문)의 '유오대산', 이선영(한글)의 '청학동가', 양정심(문인화)의 '등꽃 아래서'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특선 32명(문인화 7, 한문 10, 한글 15), 입선 57명(문인화 13, 한문 17, 한글 27)이 뽑혔다.

대상작은 "전통 문인화의 탄탄한 기본기 위에 시대적 감성과 작가의 내면세계를 잘 담아내어 미래 지향적인 작가 정신이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대상작 상금은 500만원(작품 매입비 포함). 입상작은 이달 27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대상 허은석 작가는 제주문인화연구회에서 활동 중이다. 35년 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퇴임해 농사를 짓고 있다. 수상작엔 농부의 손끝에서 자라고, 우리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말하고 싶어서 친숙한 작물을 그려 넣었다.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허 작가는 자연을 그림의 스승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듯 "귀한 채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새로운 날, 새로운 나

좋은 이야기에는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이야기 속의 인물이 시작과 끝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만들어져 있다면 창작자의 캐릭터 만들기는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고 난 후에 감정이든 감각이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 이야기 자체를 살아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폭죽처럼 터진다고 해서, 서사의 굴곡이 믿기지 않을 만큼 드라마틱하다고 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외적인 사건을 맞닥뜨린 인물의 내면에서 끓어 올라 마침내 다른 이의 마음까지 건드리는 용암과도 같은 도미노의 흐름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능적으로만 만들어진 무감한 사건들의 덫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이야기 속 인물의 생동감에 있을 것이다. 보는 이에게 동행과 동맹의 기분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극화된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돌출이고 탈출이며 변화인 동시에 진화이기도 하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볼거리는 더욱 화려해진 채로 '거미줄'의 세월과 궤적 모두 유효한 동시대성을 25년 동안이나 획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였다.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될까'와 '이번엔 또 무엇을 보여줄까'. 기대감은 후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야말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의 아이콘 격 작품이니만큼 '이야기가 새롭지 않을지언정 볼거리로는 실망시키지 않겠지'라는 마음이었다. CG가 그 자체로 새로운 화폭과 화풍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뉴욕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자유자재의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스파이더맨을 보는 것은 충분한 시각적 쾌감을 전해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이 없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될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물음이 기대로 바뀐 것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가장 큰 만족 지점이었다. 물론 기대했던 볼거리 또한 풍성했다. 하늘을 날고 곤두박질치다 솟아오르는 민첩한 리듬감에 엉덩이에 붙어 있던 의자마저 함께 움찔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쾌감의 뒤에 남는 것이 더 묵직했다. 새로울 것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에 대한 회의감 위로 인물의 미세하고 확실한 균열이 선명한 유리 조각처럼 떨어진 것이다. 소년은 자라 영웅인 채로 어른이 됐고, 거미인 동시에 인간이고, 성공의 뒤에 붙는 쓸쓸함과 실패의 앞에 놓인 좌절감을 매번 마주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손목에서 나온 씨실과 날실로 촘촘하게 직조돼 있었다. 아름답고 아픈, 쓸쓸하고 상냥한 상반되는 감정들이 영웅 서사와 블록버스터의 외피 안으로 바늘처럼 파고들 때 생각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된 채로 할아버지가 된 스파이더맨과도 만날 수 있겠구나.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